

청양 장곡사 괘불에 보이는 도상의 중첩

정명희, 203호 불교회화실 18:00~18:30

불화에 그려진 존상이 누구이며 어떤 조형적 특징을 지니는 가를 밝히는 것은 불교미술사 연구에 있어 필수 절차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존상의 명칭과 도상의 의미는 종교 미술의 특징을 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존상을 식별하게 하는 착의법, 상징적인 손 모양[手印], 지니고 있는 특별한 물건[持物], 주변 권속眷屬 등의 요소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불화를 조성한 이후 남긴 기록까지 전한다면 불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자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은 불화를 조형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이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혹은 그림의 요소가 스스로 말해주는 도상적 특징과 글로 쓰인 기록이 불일치하여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곡사 괘불을 조성한 후 남긴 화기에는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최된 영산대회 괘불[大雄殿庭中 靈山大會掛佛幀]이라는 기록이 전합니다. 영산대회는 영산회를 뜻하는 말로, 인도의 기사굴산[靈鷲山]에서의 설법모임을 의미합니다. 괘불의 중앙에 비중있게 묘사된 본존의 좌·우에는 주존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도해한 노사나불과 비로자나불이 있어 불화의 주인공이 석가모니불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화면에 적힌 붉은 칸에는 본존을 ‘미륵존불’로 적었습니다. 현존하는 120여 점 중 미륵불로 기록된 예는 1627년에 조성한 <무량사 괘불>과 더불어 장곡사 괘불이 유일합니다.

장곡사 괘불은 한 불화 안에 중첩되는 도상 코드를 숨기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 의례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모순되는 존명에서 감지됩니다. 석가모니불과 미륵불의 공존기는 17세기를 기점으로 석가모니불로 통합됩니다. 오류를 수정하고 의식을 통합하기 위해 간행된 『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은 <장곡사 괘불>에서 보이는 혼합된 신앙 양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책의 「영산작법」편에는 미륵불화를 걸고 영산작법을 진행하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영산회가 『법화경』 서품의 무대가 되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해 석가모니불의 설법회상인 <영산회상도>를 걸고 의식을 진행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미륵신앙과 석가신앙의 혼재된 예로 범주사와 금산사를 들고, 이는 교리적으로 틀린 것이라 했습니다.

<장곡사 괘불>은 석가모니불과 미래불未來佛인 미륵을 한 존재의 모습으로 보았던 당시의 신앙을 조형화한 사례입니다. 이후 미륵으로 기록된 괘불이 더이상 발견되지 않는 것도 영산대회의 신앙적 성격과 절차의 변화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모양 토기- 살림집일까, 곳간일까?

최경환,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집모양 토기[家形土器]는 실제 집을 본떠 만든 토기로, 신라와 가야의 건물 구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모양은 크게 두 종류, 즉 살림집과 곳간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안은 비어 있고 액체를 담은 굴뚝모양 깔때기와 액체를 따라내는 주둥이가 붙은 형태입니다.

○ 대구 현풍 출토 집모양 토기(그림1)

사다리가 있는 출입구 쪽에서 보면 맞배지붕이고, 반대편에서 보면 모임지붕인 집모양 토기입니다. 용마루는 맞배지붕에서 뚜렷하다가 모임지붕으로 갈수록 밋밋해집니다. 지붕면에는 별다른 무늬가 없지만 지붕을 눌러주는 새끼줄 또는 나무틀이 표현되어 있어 이엉이나 나무판자를 얹은 지붕을 묘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기에 대해 살림집으로 보는 의견과 동물 우리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 창원 다호리 B-1호 무덤 도랑 출토 집모양 토기(그림2)

지붕 부분과 벽체 및 기둥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배형인 지붕에는 가로 2줄, 세로 2줄의 점토 띠가 붙어있어 초가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용마루와 지붕 가장자리 내림마루에 점토 띠가 붙어있습니다.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 도리와 대공 점토 띠가 달렸습니다. 곡물을 보관한 공간을 본뜬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림1. 대구 현풍 출토 집모양 토기



그림2. 창원 다호리 B-1호 무덤 도랑 출토 집모양 토기와 복원품

고대 무기의 재료

이영범, 106호 백제실 19:00~19:30

무기武器는 전쟁이나 전투에서 살상력殺傷力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인류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로 발전하면서 고대 무기의 재료도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철기 문화의 등장과 과급으로 인하여 청동기보다 단단하고 예리한 농구와 공구,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철기의 본격적인 사용으로 향상된 생산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고대 국가 성립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대국가 형성기인 삼한 ~ 삼국시대에는 철기의 제작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제 무기의 생산력과 관계됩니다.

철기 제작방법에는 주조와 단조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무기를 살펴보면 도刀, 검劍, 창, 화살촉, 도끼, 낫 등 다양합니다. 이 중 도나 검은 주로 단조 방법으로 만들어지며 강도를 높이기 위해 열처리 기법을 수행합니다.

이 후 전쟁의 재료로 화약을 기반으로 하는 총·화포, 미사일, 핵폭탄 등으로 발전합니다.



그림1. 완주 상운리 출토 철기



그림2. 대장간(김홍도 작품)

<고대 무기 중 환두도의 발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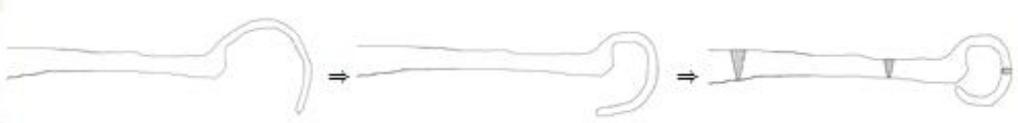
1) 1단계 (일체형) 제작과정



천안 청당동 출토



X-선 촬영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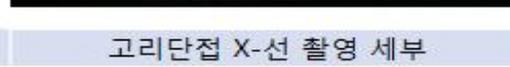
2) 2단계 (환두단접형)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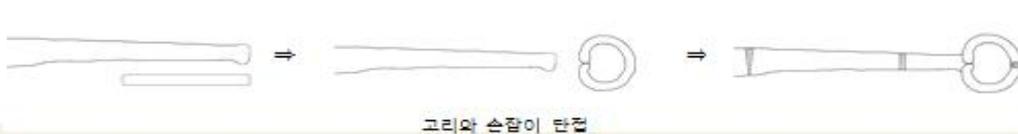
고창 남산리 출토



X-선 촬영 사진



고리단접 X-선 촬영 세부



고리와 손잡이 단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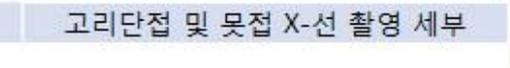
3) 3단계 (이체형) 제작과정



안성 도기성 출토



X-선 촬영 사진



고리단접 및 못접 X-선 촬영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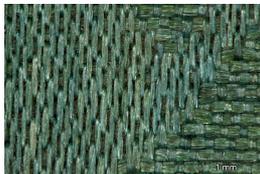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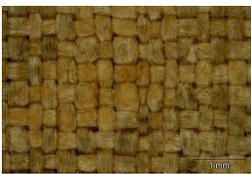
고리와 손잡이 단접 한 개의 못 구멍 뚫기 한 개의 못으로 고정(리벳팅)

제729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6월 14일)

외규장각 의궤 책의冊衣

박승원, 119호 조선III실 19:00~19:30

‘조선왕조 기록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의궤는 조선왕조의 중요한 국가 행사의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의 모든 진행 과정, 사용된 의복과 기물, 행사 담당, 행렬의 참여자까지 빠짐없이 글과 그림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왕실은 이 중요한 ‘기록’을 위해 바탕 재료인 종이에 먹을 갈아 만든 먹물로 내용을 적고, 의복이나 기물 등은 모양을 알 수 있게 그림으로 그리며 행사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반차도를 남깁니다. 그림은 선과 면으로 표현되고 채색을 없어 생동감을 더합니다. 기록할 내용의 정서가 마무리되면 책의 겉장[表紙]을 직물로 감싼 후 별도의 직물에 제목[題簽]을 적고 붉은 직물로 가늘게 테두리를 둘러[紅頰] 겉장의 왼쪽에 붙입니다. 그리고 금속 장식으로 장정을 해야 비로소 한 권의 의궤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글과 그림을 감싼 겉장, 기록이 입은 옷, 책이라 합니다. 외규장각 의궤 책의 직물은 재료에 따라 견과 마직물이 확인되며 어람용 책의는 견직물, 분상용 책의는 마직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제작방법에 따라, 무늬가 있는 견직물인 단緞, 능綾이 있고, 무늬가 없는 견직물인 주紬와 마직물인 삼베가 있습니다. 직물의 사용을 시기적으로 볼 때, 어람용 의궤의 책의 직물은 17세기부터 18세기 전반기까지는 문단紋緞을 주로 사용하였고, 일부 문릉紋綾이 존재합니다. 이후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까지는 평건平絹직물인 주를 사용하는 변화가 보이고 무늬가 없는 직물이 사용된 책의는 쪽염된 후배지[藍染紙]와 함께 배접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대부분이 초록색입니다. 책의 직물에 표현된 무늬는 구름무늬가 주류를 이루고 연꽃, 모란 등 꽃무늬가 많습니다. 구름과 연꽃무늬는 조선 시대 의복에서도 주류를 이루는 무늬로 시기적으로 그 쓰임을 같이 하는데, 보배무늬와 어우러져 자칫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밀도가 있으면서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그 외에 봉황鳳凰, 보배[寶], 과실果實, 만자卍字, 기하무늬가 있습니다.

				
<p>그림1. 『헌종빈전혼전도감의궤(상)』, 1849년(철종 즉위), 45.2×31.3, 외규291</p>	<p>그림2. 『인경왕후익릉산릉도감의궤(하) 책의』, 1681년(숙종 7), 49.2×36.8, 외규341: 문단</p>	<p>그림3. 『인조빈전혼전도감의궤 책의』, 1649년(효종 즉위), 46.6×32.4, 외규306: 무문주</p>	<p>그림4. 『정종후릉수개도감의궤 책의』, 1667년(현종 8), 50.4×38.3, 외규321: 구름무늬(‘卍’ 자형 꼬리)</p>	<p>그림5. 『집상전수개도감의궤 책의』, 1667년(현종 8), 52.1×35.9, 외규322: 봉황과 꽃무늬</p>